노랑 손수건의 하루

그네 앞에서 다시 잡은 손



글·그림 올레길



어린이집 문 앞에서 지아는 엄마 손을 놓지 못했어요. “엄마, 안 가면 안 돼?” 엄마가 노랑 손수건을 지아 손에 쥐여 주었어요.



“그네 탈 시간이 되면 데리러 올게.” 엄마가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이 문 앞에서 웃으며 기다렸어요. 지아 옆에는 토끼가 꼭 붙어 섰지요.



점심시간, 지아는 한 손에 손수건을 쥐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토끼도 옆자리에서 냠냠
먹었어요. “토끼야, 너도 처음이라 떨리지?”



간식 시간에는 선생님이 물컵을 놓아 주었어요. 지아는 손수건을 꼭 쥐고 과자를 한 입 먹었어요. 어느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낮잠 시간, 지아는 손수건을 쥐고 누웠어요.
토끼가 소곤소곤 말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네 시간이야.” 지아는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그네 시간! 지아와 토끼는 나란히
그네를 탔어요. 하늘이 노랗게 물들 무렵,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아야!”



엄마가 정말로 그네 앞에 와 있었어요. 지아는 엄마 어깨에 볼을 폭 기댔어요. “엄마, 나 오늘 손수건이랑 다 해냈어.”



저녁, 지아는 가방 옆에 손수건을 챙겨 두었어요. “내일도 그네 시간에 와?” “그럼, 꼭 갈게.” 지아는 엄마 품에서 포근히 웃었어요.

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노랑 손수건의 하루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